



加賀獅子頭

歴史と特色 가가사자머리

天正11年(1583年)初代藩主前田利家が金沢城に入城した時、お祝いの獅子舞が盛大に行われたと言われ、以後隠れた武芸奨励策としても盛んになり、獅子頭も各町に一基、町の守護として名工を選んで彫刻させ、町会を誇示するものであった。また、個人の家でも男子出生のお祝いとして床の間に飾る風習があり、盛んに作られていた。藩の細工所の彫刻師や仏師等が獅子頭の製作にあたり、武田友月、沢阜忠平、杉井乗運の加賀3名工や大野弁吉等の名工が活躍した。

加賀獅子舞は棒振りか獅子を射とめるという珍しいもので、獅子頭は八方にらみの眼の配り方もすどく、他に比べ大きいのが特色である。

原木は、白山麓の桐を使用している。

역사와 특색

1583년, 초대 마에다 번주가 가나자와성에 입성했을 때, 경축하는 사자춤이 성대하게 벌어졌으며, 이후 사자춤은 축제에서 활발히 모습을 보이게 됐다. 숨어 있는 무예 장려책을 통해서도 활발해져 사자머리는 각 지자체의 보물로 소중히 간직돼 왔으며, 또한 일반집에서도 득담을 축하하기 위해 장식했다. 가가사자머리는 사방팔방으로 부라리는 눈이 날카롭고 큰 것이 특색이다.

▶ 情報 정보

主な生産地(주요 생산지)	金沢市(가나자와시)・白山市(하쿠산시)
主な製品名(주요 제품명)	加賀獅子頭(가가사자머리)
主な生産者(주요 생산자)	知田工房(지타 공방) 〒920-2113 白山市八幡町98(하쿠산시 야와타마치 98) TEL (076) 272-1696



가가상감

歴史と特色

加賀藩2代藩主前田利長が、京都より後藤琢乘を招き、装剣技術を開発したので起源と言われ、元禄時代には一般彫金のほか金属象嵌加飾の優れた作品ができていた。金属面の象嵌する紋様部分を0.1ミリ~0.2ミリの深さにタガネで刻り下げ、底部を広げる。そして紋様に別の色の金属をはめ込み上から鎚とタガネで打ちならす。打ち込んだ紋金がアリの部分に延び広がり抜け落ちないように固定される「平象嵌」の技法が特徴である。

藩政時代には、武具を中心に隆盛を極め、特に加賀象嵌鍍[あぶみ]は、天下の名品とされ、幕府諸大名に進献された。明治維新後、絶滅状態になったが、花瓶、香炉等の製造で復活し、戦中戦後の難関を経て、現在では、若手後継者も現れ、復興のきざしもみえている。

역사와 특색

평상감 기법을 이용한 가가상감은 2 대 번주의 비호 하에, 도검 등의 무기를 장식하면서 발달했다. 특히 가가상감 등자는 천하의 일품으로 알려져 막부의 여러 다이묘에게 진헌되었다. 현대에는 꽃병, 향로 등의 제조에 전통기법이 이어져 오고 있다.

▶ 情報 정보

主な生産地(주요 생산지)	金沢市(가나자와시)
主な製品名(주요 제품명)	花瓶、置物、茶道具、装身具(꽃병, 장식품, 차도구, 장신구)
主な生産者(주요 생산자)	加賀金工作家協会(가가금속공예 작가협회) 〒920-0942 金沢市小立野5-11-1 金沢美術工芸大学内(가나자와시 코다쓰노 5-11-1 가나자와 미술공예대학 내) TEL (076) 262-3531 加賀象嵌伝承研究会(가가상감 전승연구회) 〒920-0845 金沢市瓢箪町8-33(가나자와시 호타타치 8-33) TEL (076) 261-3919

加賀象嵌